첫 사랑, 첫 열정

벧엘교회 담임목사 부임 인삿말

이종석 목사

할렐루야! 2017년 2월 20일 제천서지방 벧엘교회(부설: 참소망의 집)에 새로이 담임한 이종석 목사입니다.

새로이 부임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살림살이가 정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살면서 정리하려 합니다.

정 들면 그곳이 내 고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조금은 동서남북 지리와 건물이 파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나의 목회의 길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릅니다. 이곳에 가야겠다. 이곳에 갈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온 곳이 바로 이곳 벧엘교회입니다. 20년의 짧지 않은 목회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의 첫 목회지입니다. 지금은 영월지방과 영월 서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때만 해도 한 개의 지방인 영월지방 이었습니다. 영월 어라연 계곡이 있는 곳, 영월읍에서도 산길을 따라 그 때는 지프차를 타도 돌이 너무 많아서 차 밑창이 끌리며 덜컹거리던 곳이었습니다.

20여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되는 것은 정말 추운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평수는 약 8평 남짓 되고 교회아래에 바로 주택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택은 넉넉한 곳이 아니라 50미리 조립식 판넬로 어느 곳에서 쓰다가 처분한 것을 가져다가 지은 건물이라 틈새로 밖이 훤히 다 보였습니다.

천장에 빗자루로 들어 올리면 환하게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1년치 연탄을 살 돈이 없어서 2~3일에 한 번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사러 다닌 기억이 납니다. 창고에는 10장 이상의 연탄을 쌓아본 적도 사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의 시절을 못 잊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고 모으니 10여명은 되었던 같습니다. 주일이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면 동강에 가서 어름치를 잡아서 매운탕, 라면을 끓여서 먹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발표회를 위하여 한 달 전부터 연습하고 저녁마다 밤마다 준비하였던 일들, 추운 줄도 힘든 줄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신앙의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하였던 시절 이었습니다. 영월에 가까운 이곳 제천에서 목회를 하게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의 열정과 첫 사랑을 회복하여 목회 하라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YMCA 간사로 있으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약 50명의 장애인들을 사역하면서 온갖 장애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말 못 하는 이, 앉은뱅이, 심지어 중증 장애인은 항상 들 것에 실려 다닙니다.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이들을 찾아가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특수 목회 사역이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보람 있고 뜻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곳 벧엘교회에는 교회와 어르신들을 섬기는 참소망의 집 양로원이 있습니다. 특수 목회 사역을 했을 때를 기억하면 그리 어려운 사역은 아닙니다.

벧엘교회의 부설인 참 소망의 집이 잘 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여생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에게 큰 행복과 즐거움을 되찾아 주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 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보낸 이유는 첫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 벧엘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제단이 되고 참 소망의 집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보람을 얻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 합니다.

CHURCH NEWS 교/회/소/식

▲수요저녁예배 시간변경 이번 주 수요예배부터 예배시간이 저녁 8시로 변경.

▲실버스쿨 시간변경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실버스쿨이 금요일로 변경.

▲목욕차량 운행 매월 1회에 한해 사회봉사부에서는 목욕차량을 운행한다.

▲학생부 현장학습 학생부가 한국전쟁

에 대해 학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서울 전쟁기념관을 견학하고 귀가하는 길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다녀왔다.

▲2남선교회 선교활동 2남선교에서 몇

해 동안 전도해온 석문부락,애련부락에 두 팀으로 전도했다.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기억해 주셨고 준비한 전도용품을 전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했다.

4월24일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요!

올 선교여행은 부산광역시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 1의 무역항이며 제1의 관문인 부산광역시는 볼거리, 먹을거리 등 낭만의 도시다.

아침 7시에 출발해 먼저 해운대를 보고 동백섬으로 이동해 바다를 조망하고 시내에 있는 광안대교(다이아몬드 브릿지)를 돌아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용두산공원 전망대를 보며 잠시 휴식하고 영도다리를 건너 태종대로 이동한다.

부산 영도를 지나 태종대 등대와 멀리 오륙도를 건너다 보며 한 바퀴 돌면서 암벽으로 나있는 나무계단과 파도소리를 직접 들으며 기념비와 암벽이 일품인 등대를 돌아 인어조각상을 보며 일주를 마치면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 한다.

돌아오는 길에 자갈치 시장에서 어물이나 건어물을 구입하는 좋은 기회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읍,면 찾아가는 "노인대학"

지난 3월 14일(화) 오전11시 백운면 복지회관 1층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지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읍,면 찾아가는 노인대학"입학식을 가졌다.

기존에 있던 노인대학은 제천시에 위치해 있어 어르신들이 다니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불편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지역에서 강좌를 들을수 있어 편리하게 되었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 400여분의 어르신이 11월까지 매월 1회 2째 화요일 3시간씩 총 32시간 수료하며 주요 이수과목은 교양, 건강, 국내외 정세, 현장학습 등으로 이루어 진다.

학생장:심삼섭, 총무:홍영자.

〈품위있는 어르신 10계명〉

- 건강을 유지하자.

- 용모를 청아하게 하자.
-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자.
- 누구에게나 귀찮은 부담이 되지 말자.
-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자.
- 늘 배우고 다듬어 낙후되지 말자.
- 욕심,아집을 버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자.
- 서두르지 말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자.
- 나눔과 봉사의 생활을 하자.
-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매사에 감사.

3월호 정답자 발표

추첨결과 ▶홍희순(청주)▶유선자(가정)▶임순자(원서)로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3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발 행 인 :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 백운교회문화부
제작실무 :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 043-652-9191
발행일 : 매월 첫 주일
Email:vit2be@naver.com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4월호 "틀린 그림찾기" 응모권

그림 속의 "틀린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4월 30일 마감/추첨)

〈틀린 그림 : 5곳 찾기〉

이름:	전화번호:

지역의 알림 소개

소모임이나 친목모임에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바랍니다.

소개 코너에 참여하실 분은 업소를 알려주시면 참고하여 게재하겠습니다.